

알제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알제리

I. 일반개황

면적	2,382천 km ²	G D P	1,614억 달러(2009년)
인구	34.9백만 명(2009년)	1 인 당 GDP	4,624 달러(2009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Algerian Dinar(AD)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친프랑스	환율(달러당)	72.65(2009년)

- 알제리는 34.9백만 명의 인구, 넓은 국토(한반도의 10배), 풍부한 자원(석유매장량 기준 아프리카 4위)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경제대국임.
-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9년 현 부테플리카 대통령 집권 이후 회교무장단체에 대한 사면과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정국을 안정시켰으나 이슬람 무력단체의 테러활동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GDP의 30%, 총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가스 부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의존도가 높아 경제상황이 국제유가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제성장률	1.8	3.1	2.8	2.2	4.5
재정수지 / GDP	13.9	6.2	3.4	-7.9	-6.1
소비자물가상승률	2.5	3.5	4.4	5.7	4.9

자료 : IFS, EIU

□ 경제 성장세 회복

- 알제리 경제는 유가와 강우량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국제 유가 상승 및 기후조건 개선에 힘입어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여 왔음.
- 2006년에는 막대한 가스설비 재정비로 인한 일시적 원유 및 가스 생산감소로 1.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2007년에는 국제유가강세 및 관련 산업 투자 증가에 힘입어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2009년에는 가스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정책으로 인해 원유 및 가스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2%로 하락함.
-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 및 주택 보급 사업에 따른 건설 및 설비 부문의 확대에 비에너지부문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확장 및 공공부문 임금 인상 기조가 유지되어 2010년 경제성장률은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 물가 상승세

- 소비자 물가는 중앙은행의 긴축통화정책과 디나르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1999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2006년에는 정부재정지출 및 국내소비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다소 상승한 2.5%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임금 상승 및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로 물

가상승률이 소폭 상승하여 3.5%를 기록함.

-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국내 수요 급증 및 시장 가격 하락을 막고 있는 독점 기업으로 인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2009-10년에도 지속되어 물가 상승률은 각각 5.7%, 4.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알제리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책으로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고 라마단 기간 이전에 육류 수입을 제한할 계획임.

□ 통화 정책

- 알제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가격안정화로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1990년에 도입된 '화폐및신용에관한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화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2002년 4월, 유동성 조절을 위해 도입한 경쟁입찰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이 중앙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수단이며, 이후 금융시장의 이자율이 보다 신속적으로 결정되고 있음.
- 고유가와 원유수출증대로 인한 알제리 정부의 급격한 순해외자산축적으로 국내 유동성이 급증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통화팽창관리능력은 미흡한 상태임. 광의통화(M2) 증가율은 2008년 중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에도 점진적인 통화(M2) 팽창에 따라 여전히 높은 유동성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적자 반전 전망

- 현 부테플리카 정부가 재정책대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최저임금 인상, 교육분야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상이전지출 확대로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2005년 이래 GDP대비 10%를 상회하는 대규모 흑자를 보이고 있음.
- 2009년에는 예상 평균 유가가 배럴당 35불, 2010년에는 배럴당 50불에 불과해 재정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0년-2015년 기간 1500억불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 계획은 지연 없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2008년 11.8%에 달했던 재정수

지 흑자가 2009년에는 GDP 대비 7%수준의 재정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초과지출부분에 대해서 지난 고유가 기간 충당해둔 사회안정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 알제리 정부의 재정안정성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원유 및 가스 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강세로 외적으로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보여 왔으나 석유가스(원유, 천연가스 및 부산물)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90%를 상회함. 석유 생산이 일시 감소한 200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치는 등 유가변동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취약점을 지니고 있음.

* 석유가스산업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98%(2006년 기준)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

- 2009년 말 기준 알제리의 석유매장량은 122억 배럴로 리비아, 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10위인 4.5조 입방미터에 달하는 등 아프리카의 자원부국임.
- 2006년 알제리 정부는 석유법 개정을 통해 유가가 배럴당 US\$30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초과이윤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신규 유전 개발 및 대규모 가스관 건설이 추진되어 외국인 투자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 부문 및 국영석유기업인 Sonatrach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해외 투자를 촉진하여 2006년에는 일일산출량 1.7백만 배럴에 머물렀던 원유 생산량을 2010년까지 2백만 배럴로 증가, 천연가스 수출은 2006년 연간 660억 입방미터에서 2010년 850억 입방미터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비에너지 부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사업 적극 추진

- 알제리 정부는 에너지 부문에 편중되어온 자국 경제의 다변화를 위해 국

가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비에너지부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기술 개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이 이에 포함됨.

- 특히 정부는 석유 산업의 판매 수입으로 생긴 여유 재정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공주택건설과 같은 공공부문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인프라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공공부문사업의 민영화 추진 성과 부진

- 알제리 정부는 경제 개혁의 필요성과 민영화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2002년 테마르(Abdelhamid Temmar) 민영화 장관이 100개의 정부소유기업 중 매각 대상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으나, 사회노조(UGTA)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동 민영화 계획은 2003년 테마르 장관의 사임과 함께 중단되었음.
- 2005년 5월 테마르 전임장관이 내각에 복귀하며 민영화를 재추진 할 뜻을 내비쳤으나 2005년 IMF는 Article VI 리포트를 통해 알제리 민영화 이행 정도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함.
- 알제리 정부는 통신 및 건설과 같은 특정 산업의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 및 금융 산업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7년 국영통신기업인 알제 텔레콤(Algerie Telecom)을 부분 민영화할 것을 발표하고, 3대 상업기관 중 하나인 알제리 국민신용회사(Credit Populaire d'Algerie: CPA)의 매각을 추진함.
- 그러나 금융서비스 부문의 미발달, 과도한 정부규제 및 법규 체제 미비 등으로 인해 민영화 성과는 부진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민신용회사 매각 사업은 중단된 상태임. 2010년 5월 내각 개편으로 민영화 주도 세력이 실각하면서 민영화 계획 또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28,950	30,540	34,450	-3,940	5,406
경 상 수 지 / G D P	24.7	22.7	19.7	-2.4	3.0
상 품 수 지	34,060	34,240	40,600	4,586	16,838
수 출	54,740	60,590	78,590	43,689	55,068
수 입	20,680	26,350	37,990	39,103	38,230
외 환 보 유 액	77,781	110,180	143,102	147,221	150,098
총 외 채 잔 액	5,721	5,757	5,476	4,378	3,768
총 외 채 잔 액 / GDP	4.9	4.3	3.1	2.7	2.1
D . S . R .	22.5	2.1	1.5	3.1	2.1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 흑자폭 회복세

- 2006-08년에는 유럽국가들의 수입 수요 증대로 알제리의 원유 및 가스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상품수입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수출 증가로 이어져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함. 한편 2008-09년에는 국제 유가 하락 및 원유 감산 정책에 따라 상품수지가 46억 달러로 급감하였음.
- 2010년에는 국내 수요 급증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 수입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화 대비 디나르화 강세와 정부의 수입억제정책으로 확대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며,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출량 증가로 2010년 상품수지 흑자폭은 168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확대될 전망이다.

*상품수지 흑자폭 변화: 2008년 406억 달러→2009년 46억 달러→2010년 168억 달러

□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 전환

- 알제리의 경상수지는 전통적으로 국제유가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2006-07년에는 원유수출호조에 힘입어 2006년에는 GDP 대비 24.7%인 290억 달러, 2007년에는 GDP 대비 22.7%인 31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해외 근로자 송금액이 알제리의 주요 소득수취원인 반면 에너지 부문에 집중된 해외 투자에 대한 과실송금으로 인해 소득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소득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원유 및 가스 산업 개발과 관련한 서비스 지출 증대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09년 2.4%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3.0% 소폭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비스수지 규모 변화: 2006년 -22억 달러→2008년 -76억 달러→2010년 -92억 달러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사회 안정

□ 부테플리카 대통령 정권 기반 강화

- 2004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한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2009년 4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90.2%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3선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8년 대통령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는 기존 헌법을 개정한 바 있음.
-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제2차 임기 중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04년 6월 군부 실권자인 라마리(Mohammed Lamari)장군의 사임 사태로 이는 알제리 정치에서 전권을 가진 중심 세력인 군부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했음.
- 2007년 5월에 실시한 의회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인 FLN의 의석수가 2002년의 199석에서 136석으로 감소한 반면, 야당인 RND는 62석, MSP는 51석을 확보함으로써 의회 내 이들 정당의 의석수 확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 불안 현상 지속

-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 년간 집권하였던 민족해방전선(FLN)의 사회주의 통제경제 실패로 국내 사회 불안 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1996년 제정헌법에 의한 과격이슬람단체 불법화 이후 회교무장세력과 군부와의 무력 충돌로 준내전상태의 정국불안이 계속된 바 있음.
- 19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는 부테플리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군의 대대적인 진압, 사회 평화 정책 실시 등으로 과격이슬람단체의 무

장 투쟁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 300명 가량이 사망한 폭력사태 및 2007년 5월 의회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두 번의 자살폭탄테러 등 이슬람 세력의 테러 위협이 상존함.

- 이슬람 단체의 무장활동 외에도 높은 실업률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2000년대 초 알제리 정부의 공공 고용확대조치로 실업률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9.9% 수준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9년 12월에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규모에 대한 실망감이 확대되고, 사회 복지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비교적 높은 실업률로 인해 공공 및 민간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및 각종 도시 소요 사태로 사회불안 수준은 악화되고 있음.

□ 이슬람 테러 세력 활동 지속

- 알제리 내에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AQIM(Al-Quaida in Islamic Maghreb, 과거 살라피스트그룹) 등 극단주의 테러 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총리 집무실과 군 막사에 대한 두 차례 자살폭탄테러 이후 지난 6월에도 또 다시 경찰 막사에 폭탄공격을 감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이슬람 세력의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는 계속됨.

2. 국제관계

□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강화

-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과의 경제 협력 및 외교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이념보다는 실리위주로 외교 다변화를 추구함.
- 알제리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9/11사태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음.
- 전체 가스 소비량의 25%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유럽은 2007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며 '에너지 무기화' 움직임을 보이자 알제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으며, 현재 EU의 가스 수입량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알제리와 유럽 간 양자관계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됨.

- 과거 식민지배국이었던 프랑스는 현재 알제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여전히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프랑스 내 알제리 이주민들의 자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절대적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외환 보유액 증가

- 외환보유액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1,431억 달러, 1,4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2010년 1,50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외채 조기 상환 실시

- 알제리는 1994-96년에 파리클럽 및 런던클럽에서 129억 달러의 외채에 대해 리스케줄링을 실시하는 등 외채위기 경험국가이나, 2000년대 들어 고유가 지속으로 외환사정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외채 조기 상환을 적극 실시함. 특히 2006년 100억 달러의 외채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 외채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고 2010년 D.S.R.도 2.1%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 국제시장 평가

□ Moody's, S&P와 Fitch의 평가실적은 없음.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OECD : 3등급('09.10) → 3등급('10.01)
- Euromoney : 117/186('09.09) → 92/186('10.03)
- ICRG : 54/140('09.08) → 52/140('10.07)
- I.I. : 65/175('09.03) → 60/178('09.09)

□ 주요 ECA 지원태도

- US EXIM : 전액 인수, 제약 조건 있음.
- ECGD : 중단기 인수 가능.
- HERMES :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 1. 15 (북한과는 1958. 9. 25 수교)
- 주요협정: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97), 문화협정('97), 투자증진보호협정('99), 해상운송협정('03), 이중과세방지협정('06), 항공업무협정('09)
- 우리나라의 대 알제리 수출은 1998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아프리카 최초로 2억불을 초과함. 2000년과 2003년 사이 수출액은 단기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곧 성장세를 회복하여 알제리 교역규모는 2008년 말 수출 863백만불, 수입 845백만불로 우리나라 대 아프리카 교역국 중 6위를 기록함.
- 해외직접투자(2010년 6월 말 현재, 총 투자기준): 14건 201,883천 달러

V. 종합 의견

- 풍부한 천연 자원 및 국제 유가 강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에 있었던 국내경제가 2006년 막대한 가스설비 재정비로 인한 일시적 원유 및 가스생산감소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2010년 성장률은 정부 및 민간의 관련 산업 투자 확대와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원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8-09년의 국제 유가 하락 및 원유 감산 정책으로 인한 석유 수출액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액이 급감한 반면, 원유 및 가스 산업 개발과 관련한 서비스 지출 증대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2009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국제유가 회복으로 다시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 2009년 전년대비 석유 가격의 하락으로 정부수입 규모가 40% 감소한 반면 알제리 정부는 비에너지산업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정부지출 기조를 유지하면서 2009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어 재정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 이슬람 단체의 테러 위협 및 높은 실업률 등으로 사회불안요인이 상존하나 현 부테플리카 정부는 광범위한 정치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극단주의 테러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안정적 정국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가 경제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으로 재정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나, 외환보유액의 점진적 증가로 대외지급능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지난 해 3선 연임에 성공한 현 정부가 정치경제적으로 중장기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과 동일한 B2 등급을 부여하고자 함.